

이번주는 가까운 도서관 나들이 어때요

오늘~18일, 도서관 주간

숲체험·과학소 등 행사 다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렇다고 놀기만 하면... 가까운 도서관을 가보자. 머리도 식히면서 마음의 양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다. 이번 주(12~18일)는 '도서관 주간'이라 휴일에도 문을 연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산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탠다.

◇책도 보고 꽃씨도 받고=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회관은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자료실을 찾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50명씩 선착순으로 꽃씨를 나눠준다.

회관 내 북카페는 '과월호 잡지 나눔 행사'를 마련, 14~15일 이틀간 지난 잡지를 무료로 나눠준다.

금호평생교육관, 중앙도서관 14~15일 '전년도 잡지 및 간행물'을 무료로 나눠준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12~18일 그림책 '시리동동 거미동동' 원화 전시회를 열고 15~16일 '남남, 책먹는 아이들', '신나는 독서토론 눈술교실' 등의 책사랑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송정도서관은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가족단위 관람객 40명을 대상으로 16일 송정공원 일대에서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꾸꾸는 책 이야기(16일),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책 속 부록뽑기' 이벤트도 마련된다.

◇과학마술쇼, 인형극 보고 작가와 대화도=고흥평생교육관은 16일 오전 교육관 강당에서 '유레카 사이언스 매직쇼' 공연을 마련했다.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15일까지 선착순으로 300명

을 신청받는다. '책 제목 빈칸 채우기' 퀴즈와 '볼로나 라가치상' 수상 그림책 전시회도 연다.

목포공공도서관은 '펼치는 순간, 도서관 힘은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인형극 '꿈지와 왕국구명'을 오는 15일 두 차례 공연한다. 도서관 책과 1대 1로 교환하는 '책 바꾸잡니다' 행사(14일), 공선욱 작가를 초청, '응답하라 1318'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16일)도 마련했다.

나주공공도서관은 오는 18일 본관 독서문화교실에서 캐릭터 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2~18일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 중 마일리지 적립 여부로 상품을 나눠주는 '독서통장 마일리지 이벤트'도 연다.

화순공공도서관은 16일 현장을 찾은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야, 비온다'라는 책을 읽고 우산을 꾸미는 '봄을 담은 우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도서관 주간 오행시 짓기' 행사도 연다. 도서관 신규 가입고객에게 도서관 가방을 나눠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진도공공도서관의 경우 '우리 역사의 힘이 된 9가지 책 이야기'내용을 바탕으로 독서퀴즈를 진행한다. 장성공공도서관의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제 52회 도서관 주간을 감안, 대출 이용자 중 52번째 이용자를 선정해 도서관 이용 혜택을 늘려주는 '52번째 도서 대출자를 찾아라', '독도를 부탁해'라는 책을 읽고 감상평, 서평을 쓰는 '책 나무 열매달기',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한 '북화술쇼'(21일), '나만의 컵 만들기 체험' (16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함평, 벌교, 해남, 영광 등 지역 도서관에서도 꽃씨나눔행사, 책갈피 만들기, '샌드아트' 공연, 책 속에서 보물 찾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엽서쓰기(16일), 경북공, 거북선 모형 등을 조립하며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우리 문화재 만들기' (16일) 등을 마련해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나선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어떤 행사 열리나

행사명	일시·장소	내용
송정도서관 '감성을 자극하는 가족 숲체험'	4월16일·송정공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체험(40명)
서평나무 만들기	12~18일 광주중앙도서관	원화전시회 감상평을 붙인 서평나무 만들기
시와 음악이 흐르는 북 콘서트	16일·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시 낭송, 동화구연 등
잡지·간행물 배부	14~15일·금호평생교육관	
■ 전남		
봄꽃 책갈피 만들기 대회	~20일·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상품권 증정(100명)
공선욱 작가 강연회	16일·목포도서관	작가 사인회(100명)
독서통장 이벤트	12~18일·나주도서관	마일리지 우수 누적 어린이 시상
꽃보다 아름다운 너	16일·나주청소년수련관	꽃 관례책 읽고 꽃차 시음(중학생 대상)
우리도서관 얼마나 알고 있나?	12~18일·광양도서관	퀴즈 대회
나만의 도서관 디자인하기	16일·광양평생교육관	(초등학교생 24명)
가족공예 체험	15일·무안도서관	그림책 '투덜 부엉이'를 읽고 부엉이 열쇠고리 만들기
봄을 담은 우산	16일·화순도서관	책 '야, 비온다'를 읽고 우산 꾸미기(100명)
지금 오실로 갑니다	16일·해남도서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엽서 쓰기
우리 문화재 만들기	16일·영광도서관	경북공·거북선 등 일체 모형 만들기
꿈지락, 리딩푸드	12일·영암도서관	나만의 동화 속 주인공 만들기
'다양한 책 읽기' 도장 찍기	12~30일 곡성교육문화회관	책 1권당 증정 사진, 간식 선물
도서관 '봄 나들이'	14~15일·담양도서관	봄 꽃 화분 만들기
체험 행사	12~30일·보성도서관	'구름빵' 가면 만들기
종교 도서관에게 말해주세요	12~17일·별교도서관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 책나무에 게시
체험 행사	16일·함평도서관	책갈피 만들기
책 나무 열매 달기	12~28일·장성도서관	'독도를 부탁해' 서평 달기
독서퀴즈	12~18일·진도도서관	'우리 역사의 힘이 된 9가지 책 이야기 내용' 바탕
추천도서 목록 배부	12~18일·장흥도서관	전남 출신 작가 작품 목록
사이언스 매직 쇼	16일·고흥평생교육관	어린이 과학 체험·사진 찍기

토론·동아리 활동... 오감으로 즐기는 독서 한마당

광주·전남교육청 독서 프로그램

독서 마라톤·토론 열차학교

논술캠프·북 콘서트 등 마련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평일 16.1분을 책 읽는데 썼다. 전남 지역민의 평일 평균 독서시간은 8.8분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독서시간(22.8분)에 턱없이 못 미친다.

독서량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민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8.4권의 책을 읽었고 전남 지역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5.2권이었던 전국 평균 독서량은 9.1권. 공공도서관 이용률(광주 20.8%, 전남 12.5%)도 전국 평균(28.2%)을 밑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다. 독서실태 조사만 놓고 보면 대학생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전남 독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걸까. 책을 읽지 않는 게 학교나 교육청 탓은 아니다.

당장, 광주·전남 교육청은 학생들 책 읽히기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스스로 읽고 함께 생각하는 독서 교육'을 내걸고 ▲빛고를 독서마라톤 ▲고등학생 독서 논술 축제

▲고등학생 독서 토론 한마당 ▲독서 소나기 등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빛고는 독서마라톤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범시민 독서운동 프로그램.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참가자가 36만6000명에 달하며 매년 7만명이 레이스에 참여한다.

독서를 마라톤과 연계, 책을 읽는 쪽수에 따라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도록 한 게 특징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고등학생 독서 논술 축제는 관련 도서를 읽고 주어진 문제에 따라 학교 대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으로, 지난 1995년 독서논술경시대회로 시작했다가 2015년 독서·논술을 결합한 축제 형식으로 바뀌 운영중이다.

'독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독서 소나기'는 지난 2013년부터 작가와의 만남, 독후활동 나누기, 독서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고전에서 길을 읽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북 콘서트를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독서교육전문가로 꾸려진 독서교육현장지원단과 논술전문가로 이뤄진 광주토론논술아카데미를 구성,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

를 개발해 내놓고 있다. 학교별로는 '학생 저자 책쓰기' 동아리를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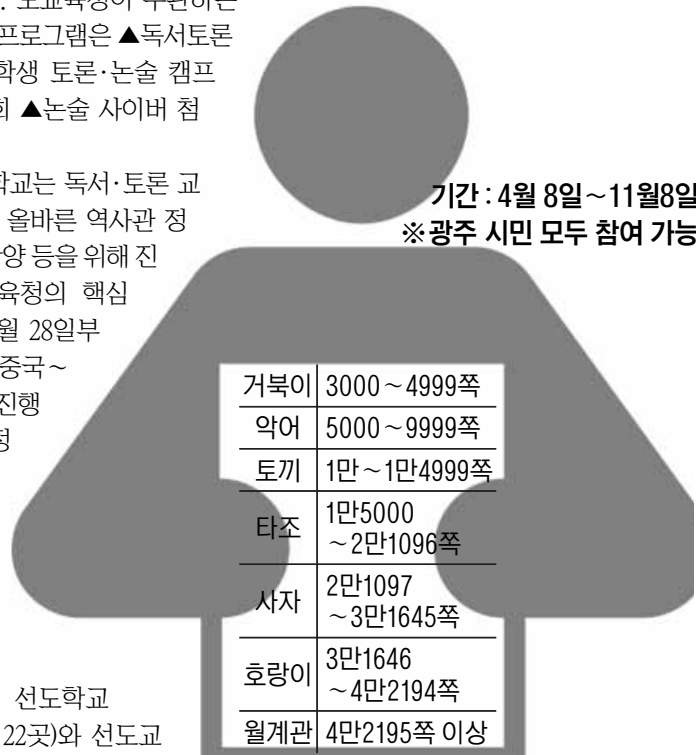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은 '생각을 키우는 독서', '말문을 여는 토론', '삶을 나누는 책쓰기'라는 슬로건에 따라 다양한 독서·토론 수업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독서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은 ▲독서토론 열차학교 ▲고등학생 토론·논술 캠프 ▲중학생 토론대회 ▲논술 사이버 첨삭교실 등이다.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전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중국~러시아 일대에서 진행되는 올해 대장정에는 전남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명, 교사 등 20명이 인솔단으로 참가한다.

도교육청은 또 선도학교(초등 22곳, 중등 22곳)와 선도교사(388명)를 지정하고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1곳당 500만원)과 연구비(1인당 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빛고를 독서마라톤 구간

기간: 4월 8일~11월8일
※광주 시민 모두 참여 가능



학교도 독서 문화 앞장서요

송원여고 '하루종일 책 읽기' 눈길

광주·전남 학교에서도 풍성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송원여고(교장 최윤수)의 경우 '고딩은 리딩(Reading)'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책을 읽는 습관'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사제 동행 책읽기', '하루종일 책읽기', '독서 문화기행', '자투리 시간 책읽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주최 '제 5회 학교 독서교육 대상' 수상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9일 학교 도서관 및 교정에서 진행

된 '하루종일 책 읽기'는 대표적인 독서 프로그램.

올해로 7회째 열리는 행사는 선·후배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신청서를 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참여도가 높다.

올해는 재학생 158명이 오전 9시부터 독서 멘토와 모둠별로 '미움받을 용기',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하루를 보냈다.

최윤수 교장은 "책장 넘기는 소리는 진정한 지식인들의 대화"라며 "책과 함께 한 학생들의 마음속에 봄날처럼 환한 독서의 꽃이 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 (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오천경매

- ▶ 투자/교육 등등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 ▶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